

무주반딧불축제 '분위기'에 빠지다

8일 송소희·오케스트라의 만남

오는 8일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장 주 무대에서는 저녁 7시부터 '국악인 송소희와 함께 하는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이 90분 간 펼쳐질 예정이다.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축제로 해마다 주민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는 무주반딧불축제는 올해 국악과 성악,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준비해 일찌감치 잊지 못할 감동을 예약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바카날을 비롯한 '넬라탄타지아, 베사 메루초' 등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들이 연주되며 '사방사방'과 '가을편지', '아름다운 나라' 등 대중성 있는 음악들도 무대에 올라 관람객들과 함께 호흡할 예정이다.

다. 국악인 송소희는 '사랑, 계절', '나 가져든', '태평기' 등을 부른다.

무주반딧불축제 관계자는 "무주아리랑에 이어 아쉽게 준비한 공연"이라며 "한 여름 폭염으로 지친 마음과 축제장을 돌며 지친 몸을 음악으로 달래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지난 1일에는 뮤지컬로 꾸며진 개막공연을 비롯해 2일에는 국가대표태권도시범단 공연과 함께 즐기는 EDM, 3일과 4일에는 무주사람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와 춤, 연주 실력을 뽐낸 재능자랑, 5일에는 무주출신 가수들과 음면 대표 주민들이 주인공이 된 산골군민 노래자랑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6일에는 반딧불동요제, 7일에는 정선호 등 흥대 뮤지션들이 펼치는 버스킹 공연, 그리고 9일에는 금잔디 등 인기가수들이 펼치는 폐막공연이 저물어 가는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아쉬움을 달래줄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KBS국악한마당, 내일 밤 7시 30분 완주 찾는다

완주문예회관에서 공개녹화

흥겨운 국악의 선율이 완주의 밤을 수놓는다. 완주군은 내일 오후 7시 30분 완주문예회관에서 KBS '국악한마당' 공개녹화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에서는 소리꾼 김용우와 국악 타악팀 소나기프로젝트, 소리꾼 안이호, 천주미 가아금 병창, 원초적음악집단 이드 등을 만날 수 있다.

소리의 정석과 함께 국악의 변주까지 함께 어우러지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흥겹게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녹화영상은 29일 오후 1시 KBS1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정희정 기획감사실장은 "열대야가 지나가고, 이제 제법 선선한 밤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완주문예회관에서 국악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KBS 국악한마당 자료사진.

이야기가 있는 어린이 동화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공연

어린이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이 오는 15일 오후 4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공연된다.

어린이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그림형제의 원작 동화를 오페라로 재구성하여 독일 민요의 친근한 멜로디와 함께 한국적인 따뜻한 가족애를 그려낸 작품으로 어린이와 어른이 모두가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은 가난하지만 재치 넘치는 남매의 성격을 요즘 유행하는 개그로 승화시켰고, 숲속의 동물과 하늘에서 내려온 발레리나 천사를 등장시켜 어린이들에게 환상과 꿈의 나라를 펼쳐 보여 감동을 선사한다.

공연 관계자는 "감작스런 위험과 두려움이 다칠 때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친구들을 구해내는 주인공을 보며 아이들이 꿈과 용기,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동화 오페라인 '헨젤과 그레텔'은 어린이와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각색하였으며, 30여회 공연동안 만석을 기록하는 등 어린이와 학부모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작품으로 관

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유익함을 선사할 것이다"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공연 관람료는 2층 5,000원 3층 3,000원(장애인·국가유공자 50% 할인)으로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매할 수 있다. '헨젤과 그레텔'은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이하 한문연)의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선정된 우수 작품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국가곡사랑회가 오는 15일 오후 5시 전주시 효자동 서도프라자 10층 문화공간 '이름'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 '창작가곡제 빛나라 천년 전라'를 연다.

창작가곡제 '빛나라 천년 전라'

한국가곡사랑회 정기연주회, 15일 문화공간 '이름'서

한국가곡사랑회가 오는 15일 오후 5시 전주시 효자동 서도프라자 10층 문화공간 '이름'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 '창작가곡제 빛나라 천년 전라'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사)신세계예술이 주관하고 전북도와 전북도문화관광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무대에 소프라노 고은영, 메조소프라노 이은선, 테너 조창배, 바리톤 허정희, 베이스 문동환 등 유명 성악가들이 참가하며, 윤기희와 최정은이 피아노 반주에 나선다.

이날 무대는 전라도 이야기(장귀자 작

사, 김종덕 작곡), 도랑을 친 뒤(김익두 작사, 이민수 작곡), 기린봉 달빛 소나타(구순자 작사, 박지영 작곡), 서동 선화(조경화 작사, 한광희 작곡), 가야 달빛별곡(한정원 작사, 이선영 작곡), 순창 아리랑(김경희 작사, 이민수 작곡), 전주 막걸리(송희 작사, 이민수 작곡), 천년전주마실길(임복근 작사, 한광희 작곡), 전주 천(유대준 작사, 김종덕 작곡), 전주 천년(유대준 작사, 김종덕 작곡), 전주 천년(유대준 작사, 김종덕 작곡), 전주 천년(유대준 작사, 김종덕 작곡) 등 전북지역을 배경으로 한 순수 창작 가곡 열창으로 꾸며진다.

/김재훈기자

예술의 전당 어린이 예술단과 함께하는 '더 리틀 하모니'

어린이들이 만드는 작지만 행복한 하모니의 울림 '예술의 전당 어린이예술단과 함께하는 더 리틀 하모니' 공연이 오는 8일 오후 2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예술의전당 어린이예술단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창단되어 합창, 기악, 국악 장르의 어린이 연주자(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예술단을 통해 어린이들이 문화예술을 더욱 즐겁게 체험하게 하고, 합창·기악·국악 등 장르의 경계를 넘어 폭넓은 예술적 경험과 소양, 그리고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이번 공연에는 오스트리아 빈 소년 합창단의 사상 첫 여성 지휘자로 활약한 김보미 교수(연세대학교)가 합창 지휘를 서울예술고등학교 정병휘 지휘자가 총감독을 맡고 있다. 이번 공연은 동요와 민요, 가곡을 예술단 어린이들이 합창과 기악, 국악으로 연주할 예정이며, 관객과 다 함께 동요를 배우고 부르는 시간도 준비되어 관객과 함께하는 환상적인 공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티켓문의: 2018년 8월 28일(화) 오전 8시-17시
문의: 063) 540-4176 http://art.gimje.go.kr
관람료: 48개월 이상
관람료: 일반7천원, 위생5천원, 청소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3천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